

한강 유역 출토 신라 수막새 고찰

- 서울·경기지역 출토 수막새를 중심으로 -

황보 경*

국문초록

신라 와당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대개 경주에서 출토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한강 유역 출토 와당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이에 필자는 몇몇 성곽과 사지, 건물지에서 출토된 수막새를 중심으로 과연 한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신라 막새의 특징이 무엇인지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 글을 마련하였다.

이제까지 출토된 신라 수막새의 문양은 다양한 편인데, 연화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쌍조문과 용면문, 바람개비문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화문류는 크게 8가지 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타류도 4가지이다. 연화문 수막새는 형식에 따라 전형적인 신라 양식도 있지만, 당시의 정세와 지역적 정서 즉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을 받거나 모티브로 삼은 막새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곽에서 출토된 막새들은 건물지에 실제 사용되었다기보다 제사 등의 의례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닌 것도 있다. 아울러 사지에서는 주로 신라나 백제 양식의 막새가 확인되는데, 이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배한 기간이 가장 짧았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 고구려가 점령했거나 보루와 인접한 성곽에서는 고구려 양식의 막새가 출토되어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고 여겨진다. 건물지에서는 전형적인 신라 양식의 연화문이나 쌍조문 막새가 출토되어 당시 지방에서 만들어진 막새 양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강 유역에서 최근까지 출토된 신라 막새는 성곽과 사지, 건물지를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6세기 중엽 이후부터이며 한강 유역의 역사적 특수성이 반영된 신라 양식의 막새가 주로 만들어지지만 고구려나 백제 양식을 모티브로 삼거나 모방한 막새들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다만, 신라 지방양식으로서의 막새 제작 기법과 성립 및 발전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와 생산 가마의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신라, 한강, 수막새, 연화문, 쌍조문, 용면문, 바람개비문

목 차

- | | |
|----------------|---------------------|
| I. 머리말 | Ⅲ. 수막새의 문양별 특징 및 성격 |
| Ⅱ. 수막새의 문양과 속성 | Ⅳ. 맺음말 |

* 세종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 dogol91@naver.com

I. 머리말

최근까지 한강 유역에서는 많은 수의 신라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어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몇몇 성곽과 사지, 건물지에서 많진 않으나 암·수막새가 출토되어져 유적의 편년이나 위상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신라 와당은 그 양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¹⁾ 공반 유물을 통한 제작시기를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한강 유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신라 수막새가 경주지역 출토품은 물론 고구려·백제 수막새들과 문양이나 제작 양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간취하여 과연 어떤 문양 및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이 글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신라 와당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김동현과²⁾ 윤근일,³⁾ 김성구가⁴⁾ 제작기법이나 문양, 특정 유적 출토 와당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뒤이어 박홍국은 삼국부터 통일신라 초기의 신라 기와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했고 같은 문양이면서 다른 형태의 막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⁵⁾ 신창수는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기와에 대해 편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⁶⁾ 그리고 임영신은 보상화문을 중심으로 연구했고,⁷⁾ 최명자와 김영진은 연화문 양식을 분석해 보기도 했으며,⁸⁾ 유난희는 새문양 막새에 대해 다루었다.⁹⁾ 임명택은 통일신라시대 귀면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바 있고,¹⁰⁾ 허미형은 통일신라시대 평와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으며,¹¹⁾ 김태근은 원향사지를¹²⁾ 최문환은 자미산성 출토 막새에 대해 분석하였다.¹³⁾ 최근에는 김유식이 신라 연화문 수막새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과 신라 와당의 형식적 특징 및 시기별 특징을 총 정

1) 와당은 드림새라고 불리는 점토판을 수기와와 암기와와 한쪽 끝에 붙여 모양을 낸 기와로 처마의 끝부분에 놓인다. 드림새는 처마를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의도로 제작되었으나 차츰 목조건물을 장식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의장성이 중요시 되었다. 의장성은 드림새의 형태와 새겨지는 문양을 통해 나타내며 건축물의 존귀함을 보여준다 (백종오,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2006, 85쪽).

2) 金東賢 외, 『新羅의 기와』, 『建築과 文樣(上)』韓國建築史大系 V, 東山文化社, 1976.

3) 尹根一, 「統一新羅時代 瓦當의 製作技法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8.

4) 金城龜, 「雁鴨池 出土 古式瓦當의 考察」, 『美術資料』 29, 國立中央博物館, 1981; 金城龜, 「多慶瓦窯址出土 新羅瓦磚小考」, 『美術資料』 33, 國立中央博物館, 1983; 金城龜, 「統一新羅時代 瑞鳥文圓瓦當小考」,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論叢發刊委員會, 1984; 金城龜, 「統一新羅時代 瓦磚研究」, 『考古美術』 162·163, 韓國美術史學會, 1984; 金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2; 金城龜, 「新羅기와의 成立과 그 變遷」, 『新羅瓦磚』, 국립경주박물관, 2000; 金城龜, 「고대 동아시아의 瓦當藝術」, 『유창중 기증 기와·전돌』, 국립중앙박물관, 2002.

5) 朴洪國,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磚에 대한 一考察」,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6; 朴洪國, 「新羅 同紋異形 막새기와에 대한 小考」, 『古文化』 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1.

6) 申昌秀, 「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의 編年」,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6; 申昌秀, 「삼국시대 신라기와의 연구-황룡사지 출토 신라기와의를 중심으로-」, 『文化財』 20, 文化財管理局, 1987.

7) 任英新, 「統一新羅時代의 瓦當과 塼에 나타난 寶相華文의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8) 崔明자, 「統一新羅時代 蓮花紋의 樣式의 分析」,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崔女珍, 「古新羅 蓮花文 瓦當의 形式과 系統」, 公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9) 劉蘭姬, 「統一新羅時代 鳥文막새에 대한 一考察」, 蔚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4.

10) 林明澤, 「統一新羅 鬼面瓦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2.

11) 허미형, 「통일신라기 평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2) 金泰根, 「驪州 元香寺址 出土 막새瓦의 研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13) 최문환, 「평택 자미산성 출토 막새 연구」, 『新羅史學報』 24, 新羅史學會, 2012.

리하기도 하였다.¹⁴⁾ 한편 유창종은 고신라와 통일신라시대 와당의 종류별 문양과 특징에 관해 다루었고,¹⁵⁾ 조원창은 황룡사지 출토 와당과 제외술에 관하여 연구했으며,¹⁶⁾ 최맹식은 삼국시대의 평기와를 중심으로 하여 막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¹⁷⁾ 한편 백종오는 고대 와당의 휘기양상을 검토하여 제의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주목받고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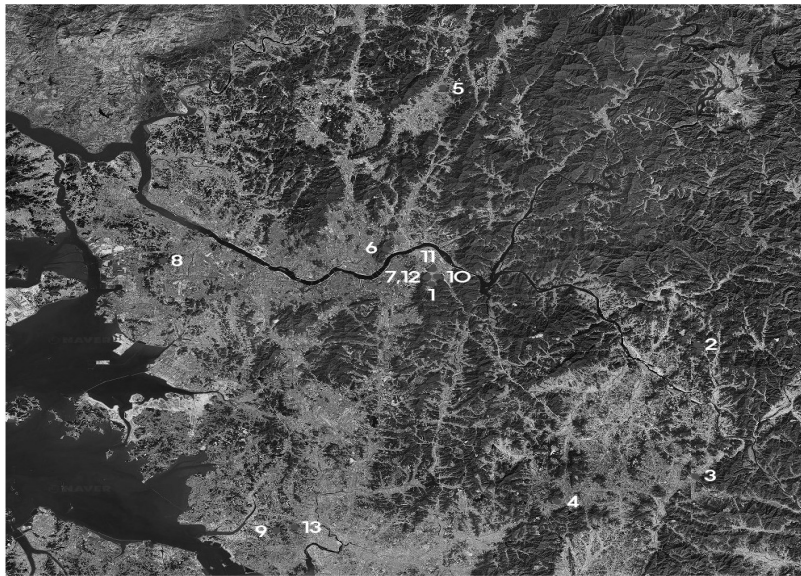
이 글에서 다루는 지역적 범위는 한강 유역 중에서도 본류역과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고, 북쪽으로는 반월산성이 위치한 포천, 남쪽은 자미산성과 봉업사지가 있는 평택·안성지역까지 포함하고자 한다.¹⁹⁾ 시간적 범위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6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초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분류 및 분석대상 막새는 수막새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²⁰⁾

II. 수막새의 문양과 속성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신라 수막새의 수는 많지 않지만, 사지나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문양이 확인되고 있다.²¹⁾ 한강 유역에는 많은 수의 신라 절터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굴이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서울 암사지와 하남 동사지²²⁾·천왕사지,²³⁾ 여주 고달사지²⁴⁾·원향사지,²⁵⁾ 안성 봉업사지,²⁶⁾ 안양 중초사지²⁷⁾ 등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각 사지에서는 창건시

-
- 14) 金有植, 「기와를 통해 본 新羅·高句麗의 對外交渉」, 『東岳美術史學』 2, 동악미술사학회, 2001; 金有植, 「한국 기와의 시대별 특징」,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국립중앙박물관, 2002; 金有植, 「통일신라시대 기와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신라시대고고학』, 韓國考古學會, 2004; 金有植, 「6~8세기 新羅기와 研究 檢討」, 『東岳美術史學』 7, 동악미술사학회, 2006; 金有植, 「5~6世紀 연화문수막새를 통해 본 新羅와 周邊諸國의 交流」, 『東岳美術史學』 10, 동악미술사학회, 2009; 金有植, 『新羅 瓦當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 15) 유창종, 『동아시아 와당문화』, 미술문화, 2009.
- 16) 조원창, 『한국 고대 와당과 제외술의 교류』, 서경문화사, 2010.
- 17) 최맹식, 「삼국시대 기와의 특징과 변천」, 『기와 그리고 전돌 명품선』,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11.
- 18) 백종오, 「韓國古代瓦當의 毀棄樣相 檢討」, 『韓國史學報』 43, 高麗史學會, 2011.
- 19) 그와 같이 분석대상 범위를 넓게 잡은 이유는 신라 성곽이나 사지의 분포 밀집도가 낮아 유적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토된 막새 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 20) 아울러 문양이 뚜렷하지 않거나 제원을 알 수 없는 수막새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두고자 한다.
- 21) 사지와 성곽, 건물지의 조사 현황은 최근 필자가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정리해 본 바 있고,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수막새의 현황은 부록〈표 1·2〉로 정리해 놓았다(皇甫慶, 「중부지방 신라 유적의 연구 및 조사현황과 성격 고찰」, 『文化史學』 36, 韓國文化史學會, 2011).
- 22) 文明大, 「廣州 春宮里 桐寺址發掘調査 報告」, 『板橋~九里·新島~半月間 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8; 文明大, 「廣州地域 寺址發掘의 성과와 의의」, 『佛教美術』 10, 東國大學校 博物館, 1991.
- 2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河南 天王寺址 試掘調査 報告書』, 2001;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河南 天王寺址 2次 試掘調査 報告書』, 2002.
- 24) 京畿道博物館·畿甸文化財研究院, 『高達寺址 I』, 2002; 畿甸文化財研究院, 『高達寺址 II』, 2007.
- 25) 畿甸文化財研究院, 『元香寺』, 2003.
- 26)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京畿道博物館,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 27) 한울문화재연구원, 「안양 (구)유유부지내 중초사지 유적 추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0.

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막새가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성곽은 한강의 본류역과 지류를 따라 분포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천 반월산성²⁸⁾ 비롯한 양주 대모산성,²⁹⁾ 서울 아차산성,³⁰⁾ 하남 이성산성,³¹⁾ 인천 계양산성,³²⁾ 평택 자미산성,³³⁾ 안성 죽주산성³⁴⁾ 등 7곳의 성곽과 하남 교산동 건물지³⁵⁾ · 춘궁동 건물지³⁶⁾ · 춘궁동 401-8번지 건물지,³⁷⁾ 평택 양교리³⁸⁾ 등의 건물지 4곳에서 출토되었다.



범 례					
1	하남 천왕사지	2	여주 고탈사지	3	여주 원향사지
4	안성 봉암사지	5	포천 반월산성	6	서울 아차산성
7	하남 이성산성	8	인천 계양산성	9	평택 자미산성
10	하남 교산동 건물지	11	하남 춘궁동 건물지	12	하남춘궁동 401-8번지 건물지
13	평택 양교리 건물지				

〈지도〉 한강 유역 수막새 출토 유적 분포도

- 28)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6: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5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 종합 보고서 -』, 2004.
- 29) 文化財研究所 · 翰林大學校博物館, 『楊州 大母山城 發掘報告書』, 1990.
- 30) 서울대학교 박물관,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2000.
- 31) 漢陽大學校 博物館, 『二聖山城 6次 發掘調査報告書』, 1999: 漢陽大學校 博物館, 『二聖山城 9次 發掘調査報告書』, 2002: 漢陽大學校 博物館, 『二聖山城 10次 發掘調査報告書』, 2003.
- 32) 鮮文大學校 考古研究所, 『桂陽山城 發掘調査報告書』, 2008;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계양산성 II』, 2011.
- 33) 한백문화재연구원, 『평택 자미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 34) 한백문화재연구원, 『안성 죽주산성 4차 발굴조사 지도위원 회의자료』, 2010.
- 35) 畿甸文化財研究院, 『河南 校山洞 建物址 中間報告書Ⅱ(2000)』, 2001: 畿甸文化財研究院, 『河南 校山洞 建物址 中間報告書Ⅲ(2001)』, 2002.
- 36) 세종대학교 박물관, 『하남 춘궁동 건물지 유적』, 2006a.
- 37) 세종대학교 박물관, 『춘궁동 401-8번지 유적』, 『하남지역 시굴조사 보고서』, 2006b.
- 38) 高麗文化財研究院, 『平澤 梁橋里 遺蹟』, 2010.

1. 문양별 분류

수막새의 문양 분류는 크게 연화문과 용면문, 쌍조문, 바람개비문으로 구분되는데, 연화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양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자세한 비교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서는 각 문양별로 형식을 구분해 보고, 막새의 개별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화문

연화문 수막새는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신라 수막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각 유적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를 연잎의 형태와 단판인 것을 우선으로 분류하여 각 형별로 <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문양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³⁹⁾

가. I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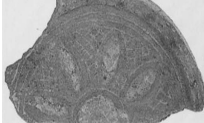
이 수막새는 연잎이 마치 아몬드처럼 너비가 좁고 긴 형태인데, 이성산성과 아차산성, 계양산성, 대모산성에서 출토되었고, 모두 5가지 식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I-1식은 8엽단판형으로 자방이 있고, 연자도 있지만 뚜렷하지 못하다. 연잎 형태는 끝이 뾰족하고 자방쪽으로 올수록 너비가 줄어들며 비교적 볼륨감이 있는 편이다. 사이잎은 Y자형으로 벌어져 있으며, 연잎과 자방 사이에 너비 0.5cm 정도의 홈이 있어 그 경계가 뚜렷하다. I-2식은 10엽단판형이며 연잎 형태가 I-1식과 비슷하지만 보다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 자방에는 4개의 연자가 도두라지게 붙어 있고, 역시 연잎과 자방 사이에 깊게 패인 홈이 돌려져 있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I-3식은 8엽단판형으로 연잎 형태가 I-1·2식과 달리 잎 끝과 뿌리부분이 동일하게 생겼으며, 역시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 자방은 I-1·2식과 같이 자방 주위에 원형의 홈이 마련되어 있어 연잎과 뚜렷하게 구분되며, 단면이 반구형으로 오목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의 막새로는 충주 탑평리 출토품이 가장 유사하다. I-4식도 8엽단판형으로 연잎 형태가 I-3형식과 비슷하지만 볼륨감이 떨어지고, 사이잎이 있는 부분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자방은 문양 판보다 오목하게 약간 돌출되어 있고, 원권이 있다. I-5식은 1/4정도 밖에 안되는 조각인데, 연잎이 선각으로 표현되었고, 사이잎은 연잎 사이로 표현되어 있다. 자방 직경은 크지 않으며, 연잎과 원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연 높이가 0.3cm로 낮은 편이고,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I 형의 수막새는 8엽과 10엽단판형이고, 연잎 형태가 끝이 뾰족하면서도 각이 잡힌 I-1·2식과 연잎 끝과 뿌리가 같은 형태인 I-3·4·5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이잎이 Y자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방 주위에 원형 홈이 돌려져 있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다.

39) 연화문의 형식별 분류에서 연잎의 형태에 따른 비유 용어는 김유식의 글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두고, 각 <표>에 수록된 경주 등의 타 지역 출토품은 제작시기보다 문양이 유사한 것을 비교해 보기 위해 게재하였음을 일러둔다(金有植, 앞의 논문, 2010).

〈표 1〉 I형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I-1식 (하남 이성산성)	I-2식 (서울 아차산성)	I-3식 (인천 계양산성)	I-4식 (양주 대모산성)	I-5식 (서울 아차산성)
				
경주 영묘사지	연천 호로고루	충주 탑평리	경주 안압지	경주 사천왕사지

나. II형

이 수막새는 ‘스페이드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포천 반월산성에서 출토되었고, 연잎 끝부분이 뾰족하고 뿌리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II형은 10엽단판으로 연잎 형태가 마치 물방울처럼 생겼고, 사이잇은 머리가 마름모꼴로 생긴 창모양이며 뿌리부분에 원형의 구슬장식이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방은 원각이 뚜렷하고, 지름이 5.0cm로 큰 편이며, 연자가 10여개 이상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막새로는 하남 춘궁동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이 1점 있는데, 비록 일부분이지만 연잎의 형태나 사이잇, 자방 등이 같은데, 자방 지름이 4.7cm이고, 연자는 가운데 1개를 중심으로 16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⁴⁰⁾ 이러한 형태의 수막새 원류로 볼 수 있는 것은 경주 월성이나 안압지·황룡사지·재매정지에서 출토된 바 있지만, 연잎의 형태만 비슷할 뿐 사이잇이나 자방의 크기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막새는 경주지역 출토품을 모티브로 한 퇴화된 양식으로 볼 수 있겠다.

〈표 2〉 II형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II형 (포천 반월산성)	하남 춘궁동 건물지	경주 월성	경주 재매정지	경주 황룡사지

40) 이 수막새는 하남 춘궁동 건물지 중 제1건물지의 하층 건물지에서 덧띠무늬병과 사선문 수키와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세종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2006a 참조).

다. Ⅲ형

이 막새는 ‘단판자엽형’이라고도 하는데, 연잎 안쪽에 자엽이 양감있게 표현된 형태로 주연부가 앞쪽으로 돌출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종류의 것은 고달사지와 원향사지, 천왕사지, 반월산성에서 모두 5종류가 출토되었으며, 이를 분류해 보았다.

Ⅲ-1식은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6엽단판 막새로 연잎이 넓게 퍼져 있고, 잎 끝부분이 융기되어 있으며 세장한 아몬드형 자엽이 1개씩 볼륨감 있게 표현되었다. 사이잎은 잎과 잎사이 끝부분에만 융기되어 있고, 자방 안에는 연자가 중앙에 1개를 중심으로 4+4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자방 바깥으로 꽃술대가 있다. Ⅲ-2식은 8엽단판으로 연잎이 큼직하고, 자방쪽에 자엽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잎 가운데에 능선이 희미하게 있다. 자방의 지름은 4.0cm이고 연판보다 약간 높게 만들어졌으며, 연자는 1+4의 배치상태를 보이고 있다. 사이잎은 연잎 사이 끝부분에 삼각형태로 약간 도드라져 있고, 주연에는 연주문이 없으며, 높이가 0.6cm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형태의 막새는 경주 고선사지 출토품과 비슷하지만, 연잎이나 자엽의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Ⅲ-3식은 연잎이 장타원형처럼 길고, 자엽도 잎과 비슷한 형태이다. 사이잎은 연잎 사이로 마치 화살촉 모양으로 뾰족하게 표현되었고, 자방은 지름 2.6cm로 작은 편이며 자방 주위에 원권이 돌려져 있다. 자방에는 연자가 1+8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주연은 연판보다 0.6cm 높게 만들어졌으며 주문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Ⅲ-4식도 8엽인데 연잎 4개는 크고, 나머지 4잎은 작게 표현되었다. 자엽은 큰 잎이 장타원형이지만, 작은 잎은 마치 햇볼모양처럼 되어 있어 잎은 물론 자엽의 형태도 서로 다르다. 자방은 지름 4.3cm이고, 연자는 1+8의 형태이며 자방 주위에 꽃술대가 돌려져 있다. 사이잎은 연잎을 감싸는 형태이고, 주연은 연판보다 0.4cm 높고, 연주문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Ⅲ-5식은 Ⅲ-4식과 연잎의 배치 형태는 비슷하지만 잎의 모양새와 사이잎 대신 주문이 있다는 점 등이 다르다. 자엽도 큰 잎에는 2개가, 작은 잎에는 1개가 있으며, 자방은 원권으로 되어 있고, 연자가 1+4의 배치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연이 높고, 초화문 장식이 있는게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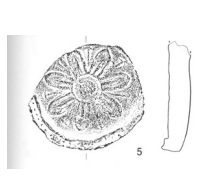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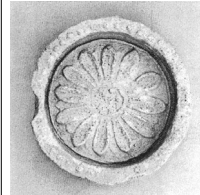
〈표 3〉 Ⅲ형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Ⅲ-1식 (여주 고달사지)	Ⅲ-2식 (하남 천왕사지)	Ⅲ-3식 (여주 원향사지)	Ⅲ-4식 (여주 고달사지)	Ⅲ-5식 (포천 반월산성)
				
경주 영묘사지	경주 남간사지	경주 고선사지	경주 황룡사지	경주 사천왕사지

라. IV형

이 수막새는 연잎에 능선이 있는 종류로 주로 원향사지에서 확인되었는데, 크게 5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⁴¹⁾ IV-1식은 8엽단판으로 연잎이 볼륨감 있게 표현되었고, 잎 가운데에 능선이 선명하게 양각되어 있다. 자방은 연판보다 낮으며, 연자가 1+16으로 배치되어 있고, 자방 가운데와 밖에 2조 원권이 있다. IV-2식은 7엽단판으로 연잎이 전체적으로 양감이 부족해 도식적인 모양새이다. 연잎은 타원형처럼 길고 너비도 일정한 편이며, 연잎 가운데에 능선이 '1'자형으로 새겨져 있다. IV-3식은 6엽단판으로 추정되고, 타원형의 연잎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연잎 가운데에는 능선이 뚜렷하게 양각되어 있고, 사이잎은 잎의 끝부분만 잎보다 뾰족하게 표현되었으며 능선이 있다. 자방은 원권이 있어 연잎과 구분되고, 지름은 3.3cm이며 연자가 1+6으로 배치되어 있다. 주연부는 소문으로 너비 0.8cm, 높이 0.2cm이다. IV-4식은 12엽단판 수막새이다. 연잎이 긴 타원형이고, 잎 가운데에 능선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없이 선각으로 처리된 모습이다. 사이잎은 잎과 잎 사이에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고, 자방에 원권이 있으며 연자가 1+4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주연은 연판보다 1.8cm 높고, 연주문이 조밀하게 시문되어 있다. IV-5식은 연잎의 볼륨감이 약하고 선각처럼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자방은 지름 5.0cm 정도로 비교적 큰 편이고, 연자가 1+8로 배치되어 있다. 주연이 연판보다 1.0cm 높고, 주문이 거칠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형이나 문양상태가 좋지 못하다.

〈표 4〉 IV형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IV-1식 (여주 원향사지)	IV-2식 (여주 원향사지)	IV-3식 (여주 원향사지)	IV-4식 (여주 원향사지)	IV-5식 (평택 양교리2건물지)
				
경주 안압지	경주 기림사	경주 황룡사지	경주 황룡사지	평창 대상리사지

41) IV-1~4형식으로 분류되는 막새에 대한 유물설명은 김태근의 글을 참고하였다(김태근, 앞의 논문, 2003).

마. V형

이 형식의 수막새는 연잎 형태가 Ⅱ형과 반대로 끝부분이 둥글고, 뿌리부분이 급격하게 좁아진다. V-1식은 8엽단판 막새로 연잎이 물방울처럼 생겼고, 연잎 주위에 외곽선이 2중으로 있으며, 사이안은 역삼각형 모양이다. 자방은 원권이 있고, 주문이 있으며 연자가 1+4로 배치되어 있다. 주연은 연판보다 약간 높고, 주문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 V-2식은 하남 춘궁동 건물지에서 출토되었고, 8엽단판이다. 비록 1/4조각이지만, 연판과 주연부가 남아 있어 큰 특징을 알 수 있다. 연잎은 V-1식과 비슷하지만 외곽선이 없고, 사이안은 역삼각형이며 그 밖으로 외곽 원권이 돌아간다.

〈표 5〉 V형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V-1식 (여주 고달사지)	V-2식 (하남 춘궁동 건물지)	경주 남산신성	경주 안압지

바. VI형

이 형식의 막새는 하남 춘궁동 401-8번지에서 출토된 12엽단판 막새로 연잎 형태가 타원형이지만 잎이 두툼하고 볼륨감이 있으며, 자방이 크고 주연에 주문이 있다. 사이안은 역삼각형이고, 연판과 주연사이가 구분되어 있다. 자방은 직경이 4.7cm로 다소 큰 편이고 연자는 4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연잎과 원권으로 분리되어 있다. 주연은 연판보다 0.6cm 높고, 주문이 조밀하게 시문되어 있다.

〈표 6〉 VI형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VI형 (하남 춘궁동 401-8번지)	경주 월성	경주 안압지	경주 황남동

사. VII형

이 막새는 복판 연화문으로 연잎 2장이 한 쌍을 이루는 것인데, 천왕사지에서 출토된 8엽복판의 것이 대표적이다. 연잎이 M자형이고, 원형 자엽이 볼륨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사이잎은 잎과 잎사이 끝부분에 역삼각형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고, 자방은 직경 4.9cm로 큰 편에 속하며 연자가 1+4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주연은 연판보다 그리 높지 않으며, 주문이 있지만 뚜렷하지 못하다.

〈표 7〉 VII형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VII형 (하남 천왕사지)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영묘사지

아. VIII형

이 형식은 중판 연화문으로 연잎이 복엽이면서 내판과 외판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가르키며, 자미산성과 봉업사지, 계양산성에서 출토되었다.

VIII-1식은 내판에 16엽이, 외판에 8엽이 배치되어 있는데, 외판 연잎은 M자형이고, 사이잎은 하트모양이다. 자방은 작고 자방 주위로 꽃술대가 돌려져 있으며, 자방 안에 연자가 1+7로 배치되어 있다. VIII-2식은 내판이 8엽이고, 외판은 16엽이다. 연판의 문양이 훼손되어 전체적인 모양새를 알기 어렵지만, 연잎이 작고 볼륨하게 돌출되어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 내판과 외판 사이는 원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방에는 여러 개의 연자가 있으며, 주연이 연판보다 약간 높다. VIII-3식도 자방을 중심으로 내판과 외판에 각 8엽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으며, 자방에는 총 31과의 연자가 배치되어 있다. 내판 연잎에는 자엽이 있고, 외판 연잎에는 자엽이 간략화된 모습이며, 사이잎도 양각으로 약식화된 듯 오목한 점으로 표현되었다.⁴²⁾

42) 이 형식과 동일한 막새로는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드림새 지름이 9cm로 소형에 속하여, 이 글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막새는 내판과 외판에 각 8엽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으며, 자방 외곽에 연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연잎에는 *모양의 꽃무늬가 있고, 사이잎은 Y자형태로 뚜렷하다. 자방에는 연자가 가운데 1개를 중심으로 둘레에 6개를 배치하였다. 주연은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연판과 높이가 같거나 낮다.

〈표 8〉 Ⅷ형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Ⅷ-1식 (평택 자미산성)	Ⅷ-2식 (안성 봉업사지)	Ⅷ-3식 (안성 봉업사지)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성덕왕릉

자. 기타 수막새류

기타로 분류한 연화문 막새는 모두 4종류로 자미산성에서 출토된 3종류와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1종류이다. 기타-1식은 엉성하게 생긴 삼각형태의 6엽단판이 배치되어 있고, 자방은 불룩하며 원권이 돌려져 있다. 앞의 형태가 마치 찰흙띠로 만든 것처럼 두툼하면서도 일정하지 않으며, 사이안은 물방울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기타-2식은 5엽단판으로 연잎이 사다리꼴 모양이고, 자방이 있지만 연자가 없다. 기타-3식은 8엽단판인데 선각으로 표현되었고, 사이안이 T자형으로 돌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드림새 지름이 가로와 세로가 달라 타원형에 가깝고, 자방에 많은 수의 연자가 음각되듯이 있다. 주연은 연판보다 높지만, 주연 너비가 일정하지 못하고, 소문으로 처리되었다. 기타-4식은 평면이 타원형에 가깝고, 단선으로 거칠게 표현되었는데, 가운데 자방으로 볼 수 있는 원형의 공간을 중심으로 방사상 형태로 3종의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표 9〉 기타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기타-1식 (평택 자미산성)	기타-2식 (평택 자미산성)	기타-3식 (여주 원향사지)	기타-4식 (평택 자미산성)
			
서울 몽촌토성	서울 몽촌토성		

(2) 쌍조문 수막새

쌍조문 수막새는 하남 춘궁동 401-8번지에서 단 1점만 출토되었는데, 동사지에서도 이와 같은 종류의 수막새가 출토된 바 있다.⁴³⁾ 이 막새 특징은 2마리의 새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며, 새 주위로 여러 꽃무늬가 배치되어 있다. 새 날개는 활짝 펼쳐져 있고, 새 머리 윗부분에는 ‘王’자 또는 ‘王’자로 여겨지는 명문이 있다. 그리고 새의 머리 위와 다리 밑에도 꽃장식이 있고, 새와 새 사이 가운데에는 해바라기처럼 원문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으며, 꽃술대가 희미하게 시문되어 있다.

〈표 10〉 쌍조문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하남 춘궁동 401-8	하남 동사지	경주 안압지	경주 감은사지

(3) 용면문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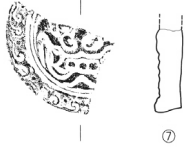
용면문 수막새는 일반적으로 ‘귀면문’이라고도 하는데,⁴⁴⁾ 천왕사지와 하남 교산동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천왕사지의 것은 1/3정도만 남아 있고, 교산동 건물지의 것은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다.

용면-1식은 용면의 코와 입, 주연 일부분만 남아 있다. 치아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송곳니와 윗니 4개가 있는데, 아랫니가 없고 혀와 턱부분이 강조된 듯 하다. 용면의 외곽으로 원권이 돌려져 있고, 주연부에는 주문과 구름문이 시문되어 있다. 용면-2식은 교산동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용면과 주연부가 잘 남아 있다. 용면은 천왕사지 출토품보다 입을 크게 벌려 웃고 있는 모습이며, 송곳니와 치아도 정밀하게 표현되었다. 눈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눈썹이나 볼 주변이 화염처럼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져 있다.

43) 동사지에서는 쌍조문 수막새 2점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고, 드림새 지름이 16.5cm이다(文明大, 앞의 책, 1988).

44) 전통적인 귀면문의 모티브는 용형면(龍形面)에 사자 형상을 가미한 형상에서 오는 것이 보통이다(林永周, 『韓國紋樣史』, 미진사, 1983, 228쪽). 그리고 강우방은 귀면화에 대해 뿔이 있거나 보주를 물고 있는 모습, 입가에 운기문이 있는 점에 근거하여 용면화로 지칭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백종오도 기와의 상징성 내지 신성(神聖)의 측면에서 용면문이라 보고 있다(姜友邦, 『韓國瓦當藝術論序說』, 『新羅瓦塼』, 국립경주박물관, 2000; 백종오, 앞의 책, 2006, 93쪽). 이에 필자도 한강 유역 출토 용면문 막새의 문양이 단순한 귀면이 아니라 이목구비는 물론 뿔을 연상케 하는 화염이나 입가의 문양 등으로 보아 용면에 가깝다고 본다.

〈표 11〉 용면문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용면-1식 (하남 천왕사지)	용면-2식 (하남 교산동 건물지)	서울 암사지	충주 탑평리

(4) 바람개비문 수막새

바람개비문은 ‘파문(巴文)’이라고도 하며, 한강 유역에서는 자미산성 출토품이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막새는 자미산성에서 모두 24점이 출토되어 비교적 많은 양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막새 평면은 세로보다 가로가 더 커서 타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 바람개비의 날개 두께가 두툼하고 거칠게 표현되었다. 주연은 문양판과 높낮이 차이가 거의 없으며, 주문이 없다.

〈표 12〉 바람개비문 수막새와 비교 수막새

			
평택 자미산성	부여 영고당	광양 마로산성 1	광양 마로산성 2

2. 속성 분석

막새의 속성 분석은 색깔과 드림새 지름, 드림새 두께, 주연 너비와 높이, 자방의 지름, 연자의 개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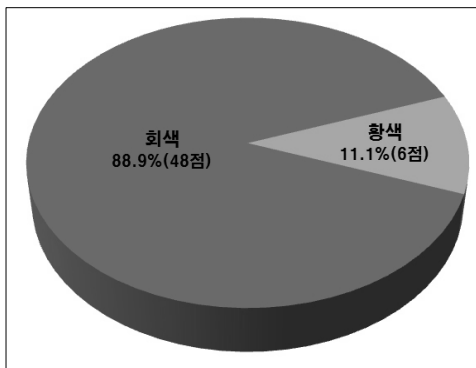
(1) 색깔

막새의 색깔은 소성상태에 따라 회색 또는 황색, 적색 계통의 색깔을 띠게 되는데,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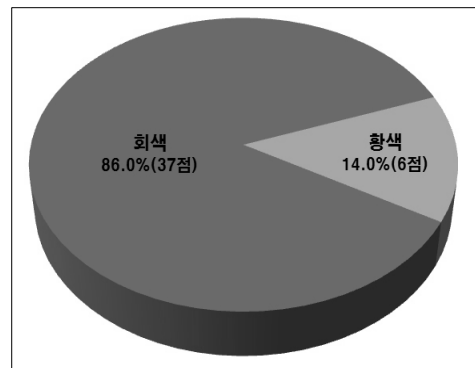
수막새들이 띠는 색깔은 크게 회색(회청색·회흑색·회갈색·흑회색)과 황색(황갈색)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사지에서 출토된 수막새 16점 중 색깔을 알 수 있는 것은 13점인데, 이 중에서 회색계통은 11점(84.6%)이고, 황색계통은 2점(15.4%)이다. 그리고 색깔을 알 수 있는 연화문 수막새 12점 중에서 회색계통이 10점(83.3%), 황색계통은 2점(16.7%)로 나타났다. 나머지 용면문은 회색계통이므로 사지에서 출토된 수막새는 회색계통이 황색계통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곽과 건물지에서 출토된 수막새는 41점으로 모두 색깔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회색계통이 37점(90.2%)이고, 나머지 4점(9.8%)이 황색계통이다. 역시 색깔을 알 수 있는 연화문 수막새 31점 중에서 회색계통은 27점(87.1%)이고, 황색계통은 4점(12.9%)으로 사지에서 출토된 수막새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황색계통의 수막새가 이성산성과 계양산성, 자미산성에서만 출토되었고, 건물지에서는 모두 회색계통만 출토되었다. 결론적으로 색깔을 알 수 있는 수막새 54점 중에서 회색계통 수막새는 48점(88.9%)이고, 황색계통 수막새는 6점(11.1%)이며, 연화문 수막새 43점 중에서 회색계통은 37점(86.0%)이고, 황색계통은 6점(14.0%)이다.

〈표 13〉 수막새 색깔 비율



〈표 14〉 연화문 수막새 색깔 비율



그 외 용면문과 쌍조문, 바람개비문 수막새 11점은 모두가 회색계통의 색깔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강 유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신라 수막새의 색깔은 이제까지 출토된 현황으로 볼 때 회색이 황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경주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2) 드림새 지름과 두께

드림새 지름은 동일한 와범을 추정하는 것과 같은 건물에 올려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크기에 따라 일반 수막새와 대·소형 수막새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막새 두께의 속성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제작기법상의 보토사용에 대한 측정치로서 이는 제작과정과 연관이 깊다는 의견이 있다.⁴⁵⁾

45) 金泰根, 앞의 논문, 2003, 51쪽.

먼저, 연화문 수막새의 드림새 지름과 두께를 살펴보면 I형의 경우 이성산성과 아차산성·대모산성에 출토된 막새 지름은 13~15cm 정도지만, I-3식인 계양산성 출토품은 주연부가 결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이 17~18cm 안팎이어서 대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새 두께는 2.5~2.8cm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II형은 반월산성과 춘궁동 건물지 출토품이 같은 형식의 것으로 지름이 15.4cm 정도로 파악되어 일반적인 크기로 보여진다. III형은 막새가 5종류면서 출토지도 4군데로 다양한데, 이들 막새의 드림새 지름은 III-5식을 제외한 나머지가 12~15cm이고, III-5식만 17cm로 큰 편에 속한다. 두께는 1.8~2.8cm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드림새 지름이 가장 큰 III-5식이 가장 두꺼운 반면 III-4식이 지름에 비례하여 두께도 가장 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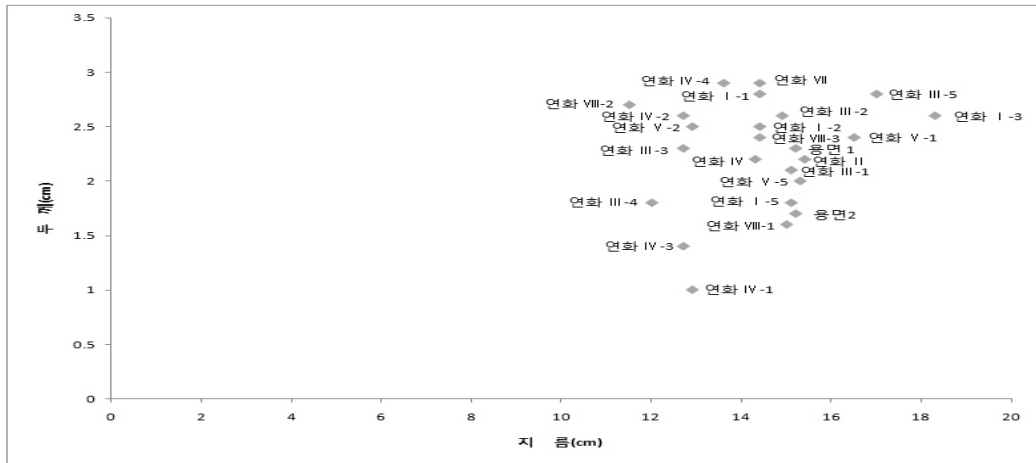
IV형의 막새는 5종류인데 그 중 4종류가 원향사지에서 출토되었고, 나머지 1종류는 평택 양교리 것이다. 드림새 지름은 IV-1~4식이 12~14cm 사이이고, IV-5식은 15.3cm로 다소 큰 편이지만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두께는 지름과 달리 1.0~2.9cm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V형은 2종류로 고달사지와 춘궁동 건물지에서 출토되었고, 드림새 지름은 V-1식이 크고, V-2식이 12.9cm로 작으며, 두께는 2.0~2.5cm사이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막새로는 경주 남산신성에서 출토된 8엽단판 연화문 막새로 지름이 19.0cm, 두께 2.0cm로 드림새가 V-1식보다 2.5cm정도 크며, 경주 안압지 출토품은 지름 14.9cm로 V-1식보다 약간 작다. VI형은 춘궁동 401-8번지 건물지에서 적지 않은 양이 출토되었는데, 드림새 지름은 평균 14.3cm, 두께 2.2cm로 일반적인 크기와 두께를 보이고 있다. VII형은 천왕사지 출토품 1점으로 드림새 지름이 14.4cm로 일반적인 크기이고, 두께는 2.9cm로 약간 두툼한 편이다. VIII형은 3종류로 나뉘지는데, 드림새 지름이 VIII-1식의 것이 15cm가장 크고, 두께는 VIII-2식이 2.7cm로 가장 두껍다. 그리고 기타 수막새류는 자미산성과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4종류로 그 중에서 기타-2식이 드림새 지름 17.0cm로 가장 크며, 기타-4식도 16.5cm로 작지 않다.

다음으로 쌍조문 수막새는 춘궁동 401-8번지 출토품이 주연부가 결실되어 드림새 지름을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동사지 출토품이 지름 16.5cm로 경주 안압지나 경주 감은사지 출토 쌍조문 수막새(지름 13~14.5cm)보다 최소 2cm정도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막새 두께도 춘궁동 401-8 출토품이 2.7cm로 안압지와 감은사지 출토품에 비해 0.7~1cm 정도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용면문 수막새는 1식과 2식의 드림새 지름이 같은 15.2cm이고, 두께는 1식이 2.3cm, 2식이 1.7cm로 두 막새가 0.6cm정도의 차이가 난다. 참고로 서울 암사지에서 출토된 용면문 막새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눈과 코, 입이 볼륨감 있게 표현된 점으로 볼 때 경주 출토 용면와들과 크기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람개비문 수막새는 자미산성에서만 출토되었는데, 드림새 지름이 15.5cm이지만 문양판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넓어 타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은 정형화 되지 못한 상태인데, 부여 출토 백제 바람개비문 수막새 지름이 15~17cm정도여서 크기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림새의 지름 평균은 14.5cm이고, 두께 평균은 2.1cm인데, 연화문 막새의 드림새 지름 평균 14.3cm, 두께 평균 2.2cm로 전체 드림새 지름과 두께 평균과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분석대상 수막새 중에서 드림새 지름이 가장 큰 것은 연화문 I-3식(18.3cm)이고, 용면문-1·2식의 드림새 지름이 15.2cm로 평균 지름값보다 다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드림새 지름과 두께 비율



(3) 자방 지름과 연자 수

자방은 일반적으로 연화문 수막새에 있는 것이며, 자방 안에 여러 개의 연자를 배치한다. 여기에서는 연화문 수막새에 있는 자방과 연자의 개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자방의 지름을 알 수 있는 수막새는 모두 24점으로⁴⁶⁾ 최소 2.1cm에서 최대 6.0cm사이로 파악되었다. 이를 〈표 16〉으로 나타내어 보았다.

〈표 16〉 수막새 자방지름과 형식별 분류

수량 및 형식 \ 단위(cm)	2.1~3.0	3.1~4.0	4.1~5.0	5.1~6.0	합계(%)
수량(%)	6(25.0)	9(37.5)	7(29.2)	2(8.3)	24(100%)
형식별	Ⅲ-3·5 Ⅳ-4,Ⅷ-1·2 기타-1	Ⅰ-1·2·5, Ⅲ-2, Ⅳ-2·3, Ⅷ-3, 기타-2·3	Ⅱ,Ⅲ-4, Ⅳ-1·5, Ⅴ-1,Ⅵ,Ⅶ	Ⅰ-3,Ⅲ-1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방 지름이 2.1~3.0cm가 6점이고, 3.1~4.0cm가 9점, 4.1~5.0cm도 7점으로 분석대상 24점 중 16점(66.7%)이 3.1~5.0cm에 해당되며, 5.1~6.0cm가 2점으로 가장 적다. 그리고 각 형식별로 자방 지름을 살펴보면, 연화문 Ⅰ형 중 Ⅰ-1·2·5식은 자방 지름이 3.1~4.0cm이지만, Ⅰ-3식은 6.0cm로 분석대

46) 자방 지름을 알 수 있는 연화문 수막새의 개체 수량은 이 보다 많으나, 같은 형식의 막새끼리 중복되어 비율에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각 형식별 자방 지름 평균을 반영한 것이다.

상 수막새 중 가장 큰 자방을 갖고 있으며, 이는 드림새 지름과 비례하는 경향도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Ⅱ형은 5.0cm로 자방이 다소 큰 편에 속하고, Ⅲ형은 막새 5점이 2.1~6.0cm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다양하다. Ⅳ형도 비교적 자방 지름이 넓게 퍼져 있는데, 3.1~4.0cm에 2점이 포함되어 있다. V-1식과 Ⅵ·Ⅶ형은 4.1~5.0cm에 해당된 반면, Ⅷ형은 2.1~3.0cm에 2점, 3.1~4.0cm에 1점이 있어 다른 형식의 막새들보다 자방 지름이 다소 작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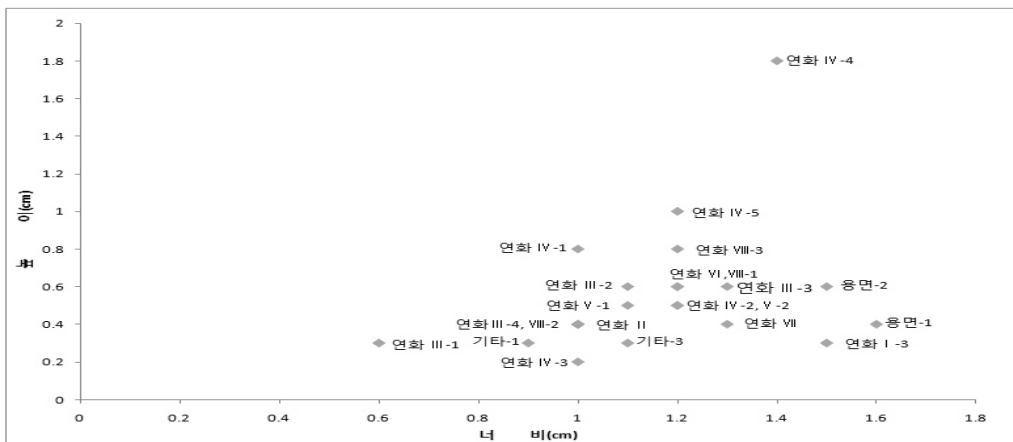
연자는 22점의 수막새에서 확인되었는데, 연자가 5개인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자가 5개인 것은 연자 배치가 1+4인데 모두 5점(Ⅲ-2·5, Ⅳ-4, V-1, Ⅶ형)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한다. 그리고 연자가 9개(1+8, 1+4+4)인 것이 4점(Ⅲ-1·3·4, Ⅳ-5식)으로 18.2%이고, 4개인 것은 2점(Ⅰ-2, Ⅵ형), 7개(1+6)인 것은 1점(Ⅳ-3식), 8개(1+7)도 2점(Ⅳ-2, Ⅷ-1식)이다. 이밖에는 연자가 10개 이상인 것이 Ⅱ형과 Ⅳ-1, Ⅷ-3식 등에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자방 지름은 3.1~4.0cm에 해당되는 것과 연자 5개인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자방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연자가 많지 않음도 알 수 있었다.

(4) 주연 너비와 높이

주연부는 막새의 테두리로서 막새 크기를 결정하는 외형적인 요소이기도 하면서 드림새를 보호 및 강조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주연부에 장식된 연주문은 드림새에 장식된 문양의 신령스러움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⁴⁷⁾ 또한 통일신라시대의 암·수막새 대부분에는 주연부에 연주문이나 초화문의 장식 문양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주연부에 이런 장식문양이 있는지 여부는 삼국시대 와당인지 아니면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와당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다.⁴⁸⁾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수막새에 주연부가 제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총 57점 중에서 41점(71.9%)이고, 나머지는 주연부 대부분이 깨진 것이다. 수막새 주연 너비와 높이를 나타내어 보면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주연 너비와 높이 비율



47) 백종오, 앞의 책, 2006, 94쪽.

48) 유창중, 앞의 책, 2009, 169쪽.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연의 너비는 최소 0.6cm부터 최대 1.6cm까지 있어 1.0cm 정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주연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있는 23점의 수막새 주연 너비 평균은 1.18cm이고, 높이는 0.6cm로 구해졌다. 그리고 주연 너비에 있어 최빈수는 평균과 가까운 1.2cm가 가장 많으며, 높이 최빈수는 0.6cm로 역시 평균값과 거의 같았다. 또한 용면문과 바람개비문 수막새의 주연 너비는 1.5~1.7cm로 주연 너비 평균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면문의 주연 너비가 넓은 것은 주연에 비교적 큰 주문이나 다른 문양 장식을 하여 용면을 보다 강조 즉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닌가 한다.

Ⅲ. 수막새의 문양별 특징 및 성격

한강 유역에서 최근까지 출토된 수막새의 문양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화문과 쌍조문, 용면문, 바람개비문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연화문은 크게 8가지 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타도 4종류나 된다. 그 외 쌍조문과 바람개비문은 각각 1종류씩이고, 용면문은 2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수막새의 각 문양별 특징과 제작 시기 및 성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연화문류

연화문 수막새는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부터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 제작시기에 관해 4세기대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며,⁴⁹⁾ 백종오는 본격적인 연화문 와당이 불교를 받아 드린 소수림왕대가 아닌 고국양왕대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⁵⁰⁾ 그리고 최근 서울 풍납토성에서도 원시적인 형태의 연화문 수막새가 출토되었고, 몽촌토성에서도 그와 비슷한 막새가 출토되기도 했다. 신라에서는 연화문 수막새가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아 경주 나정이나 월성해자, 물천리 경마장 등에서 출토된 것을 바탕으로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¹⁾ 또한 연화문은 680년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소박한 삼국시대의 고식단판양식에서 연판 안에 자엽이 장식되고 주연부에 주문이나 화엽이 새겨지는 새로운 형식의 와당양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리고 연화문도 단판 이외에 복판·중판·혼판 등 다양한 양식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⁵²⁾ 따라서 신라 연화문 수막새는 5세기 후반경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다가 7세기 후반 삼국통일을 계기로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과연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각기 제작 시기는 언제일지 추론해 보고자 한다.

연화문 막새의 형식 중에서는 I 형의 것이 가장 고식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롭게도 모두가 산성에서 출토

49) 김희찬, 「4세기 고구려 연화문 와당의 개시연대에 대한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4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50) 백종오, 앞의 책, 2006, 88~89쪽.

51) 金有植, 앞의 논문, 2010, 119쪽.

52) 김성구, 앞의 논문, 2002, 292쪽.

되었다 점과 I-1~3식 막새의 주연부가 깨져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⁵³⁾ 연잎의 수는 I-1·3·4식이 8엽이고, I-2·5식만 10엽이며, 연잎의 형태는 I-1·2식이 연잎 끝부분이 삼각형태로 각이졌는데 비해 I-3·4식은 아몬드처럼 연잎 끝이나 뿌리가 대칭되는 모양이다. 특히 I-3·4식의 막새는 충주 탑평리와 경주 안압지 출토품(〈표 1〉 참조)과 연잎은 물론 사이잎 형태, 자방 둘레에 홈이 있는 점 등이 유사하며, 연천 호로고루 출토품과도 전체적인 모티브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방의 지름이나 형태도 반구형이거나 원각이 있는 점, 연자 개수도 4개내지 5개 또는 없는 점 등이 공통적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막새는 경주 영묘사지와 안압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비교가 가능하며, 제작시기는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6세기 중반 이후부터 7세기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1식은 전체적으로 투박하게 만들어졌지만, I-2식은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막새로 평가되며 고구려 수막새들과 닮았다고 본다. 그러나 I-3식은 연잎이 한층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되어 충주 탑평리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여 한강 유역 출토 I형 수막새들은 고구려와 경주·충주의 출토품과 비교될 수 있겠다.

연화문 II형은 반월산성과 춘궁동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이 막새의 특징은 연잎 끝부분이 뾰족하고 뿌리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점인데, 경주 월성이나 재매정지, 황룡사지 등에서 시원적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자방이 경주지역 출토품에 비해 크고, 연자가 많으며 볼륨감이 없어 퇴화된 양식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제작시기도 반월산성이나 춘궁동 건물지에서 함께 출토된 명문기와와 평기와, 인화문 토기 등으로 보아 9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연화문 III형은 연잎 안쪽에 자엽이 있는 것으로 이를 단판자엽형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5개식으로 나뉘지며 III-5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식은 사지에서 출토된 점이 특징이다. 연잎의 숫자는 6엽과 8엽이고, 자방의 연자도 III-2·5식의 것은 5개지만, III-1·3·4식은 9개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III-2식의 경우 연잎이 크고, 자방쪽에 자엽이 아담하게 있으며, 주연에 연주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주 고선사지 출토품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백제와 일본 출토품과도 비교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⁵⁴⁾ 따라서 III형 중에서 III-2식 막새가 가장 고식으로 보여지며, 하남 천왕사지의 창건내지 목탑 조성시기와 관련성도 있어 7세기경으로 판단된다.⁵⁵⁾ 그리고 III-5식의 경우 주연부에 초화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III형 중에서는 늦은 시기인 9세기를 전후한 때로 판단된다.

연화문 IV형은 연잎에 능선이 있는 것으로 5개식으로 나뉘지는데,⁵⁶⁾ IV-1~4식이 원향사지에서 나머지 IV-5식은 평택 양교리 2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연잎의 개수는 6엽부터 12엽까지 다양하고, 드림새 지름은 IV-1~4식이 12.7~13.6cm사이로 큰 차이가 없지만, IV-5식은 15.3cm로 다소 크다. 두께는 IV-1·3식이 IV-2·4식보다 절반 정도 얇은 편이다. 자방 지름은 IV-2·3식이 3.3cm로 같고, 연자는 8과와 7과로 비슷하며, IV-1식의 자방이 4.6cm로 가장 크면서 연자도 17과나 된다. IV형과 비슷한 막새는 경주 안압지와 기림사·

53) 주연부가 깨져 있는 것은 제사나 의례를 위해 일종의 휘기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백종오, 앞의 논문, 2011).

54) 노운상, 「河南 天王寺址 出土 二重蓮瓣 막새의 제작시기 檢討」, 『新羅文化』 3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2.

55) 황보경, 『신라 문화 연구』, 주류성, 2009, 246~251쪽 참조.

56) 신라의 와당형(瓦當型)은 연판안에 능선이 장식되고 그 끝이 반전되고 있거나 둥글게 곡면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개 6엽이나 8엽의 연판이 새겨지고 있는 활판계로서 백제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인 반전수법과 고구려의 장식의장인 능선이 결합된 복합적인 와당형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구, 앞의 논문, 2002, 292쪽).

황룡사지, 평창 대상리사지⁵⁷⁾ 등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연잎의 능선이 가늘거나 굵은 선으로 처리됐고, 연잎이 볼륨감 있게 표현된 것이 많다. 특히 대상리사지 출토품의 경우 문양으로 보아 Ⅳ-4식과 닮았지만 그보다는 경주 출토품들과 보다 비슷하여 한강 유역의 막새와는 차이점이 엇보인다. 그리고 Ⅳ-5식 막새는 고구려 안학궁에서 출토된 수막새와 모티브가 비슷하며, 전체적으로 고구려의 수막새 문양을 본 따 만든 나팔여초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김유식은 능선이 새겨진 연화문 수막새가 6세기 중엽경부터 나타나 삼국시대 말까지 계속 유행하며, 양감이 강하여 마치 터질 듯한 느낌을 준다고 보았다.⁵⁸⁾ 김성구는 능선형 막새의 원형이 6세기 초중반경 백제와 고구려에서 이미 제작되었고, 신라가 6세기 후반~7세기 초에 경주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 또한 자방의 형태나 연자배치 등 약간의 변화를 거치면서 통일직후까지 주류를 이루면서 계속 만들어졌다고 하였다.⁵⁹⁾ 그러나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막새들은 경주지역 출토품보다 드림새 지름도 작을 뿐만 아니라 볼륨감이 퇴화된 문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작 시기도 원향사지의 경영시기와 맞물려 9~10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연화문 Ⅴ형은 2개식으로 분류되고, 출토지는 고당사지와 춘궁동 건물지이다. 문양의 특징은 연잎 끝부분이 둥글고, 뿌리 부분이 좁아지며 Ⅴ-1식의 경우 연잎에 화륜이 2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사이잎이 연잎과 연잎 사이에 삼각형태로 표현되고, 주연에 연주문이 있다. Ⅴ-1식은 드림새 지름이 Ⅴ-2식에 비해 3.6cm 정도 크지만 두께는 비슷하며, 주연 너비와 높이는 거의 같다. 문양으로 볼 때, Ⅴ-1식은 경주 남산신성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며, 경주 안압지 출토품과도 비슷한 모티브를 보이고 있다. 드림새 지름은 남산신성의 것이 19.0cm로 큰 편이고, 안압지의 것은 14.9cm로 일반적인 크기이다. 따라서, Ⅴ-1식이 Ⅴ-2식보다 선행하는 양식으로 보이며, 제작 시기는 8~9세기대로 판단된다.

Ⅵ형은 최근까지 1종류만 확인되었는데, 연잎이 작지만 두툼하면서 볼륨감 있게 표현되었고, 자방이 크며 주연에 연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막새의 드림새 지름은 14.3cm로 일반적인 크기이고, 두께도 2.2cm로 보통이다. 제작 기법은 드림새에 수키와를 역 ㄱ자형태로 접합했고, 주연 너비와 높이도 다른 연화문 막새와 같은 평균치에 해당된다. 이와 비슷한 막새로는 역시 경주 월성과 안압지 등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이들은 연잎 형태가 거의 같고 자방 지름도 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Ⅵ형의 연잎이 보다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수막새의 제작 시기는 경주 출토품보다 연잎 숫자가 많고, 연주문이 있으며 수키와 문양이 단상선문 종류라는 점, 뒤에서 다룰 쌍조문 막새와 공반출토된 점으로 보아 8세기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Ⅶ형 막새도 단 1종류만 출토되었는데, Ⅲ-2식과 함께 하남 천왕사지에서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막새는 8엽복판 연화문 수막새로 연잎에 원형 자엽이 볼륨감 있게 표현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자방이 비교적 크고, 주연에 연주문이 희미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막새의 드림새 지름은 14.4cm, 두께 2.9cm로 일반적인 제원인데,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복판수막새와 문양면에서 비슷하고, 제원도 비슷하다. 그러나 연잎에 자엽이

57) 강원문화재연구소, 『平昌 大上里寺址』, 2006.

58) 김유식, 앞의 논문, 2002, 308쪽.

59) 김성구, 앞의 책, 2000, 435쪽.

없고, 자방 주위에 꽃술대가 없는 점, 연자가 많다는 점 등은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천왕사지 출토 가Ⅱ Ca③'형과 비교해 보면,⁶⁰⁾ 연잎에 자엽이 장식된 점은 비록 부분이지만 유사성이 간취된다. 그러나, 이 형식의 막새는 경주에서 제작된 복판막새와는 다른 지방양식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작시기는 Ⅲ-2식과 비슷한 7세기대로 여겨진다.

Ⅷ형은 중판의 연화문 막새로 모두 3개식으로 분류되는데, Ⅷ-3식만 거의 완전할 뿐 나머지 2점은 절반 정도만 남은 상태이다. Ⅷ-1식은 외판 연잎이 M자형, 사이잎이 하트형인 점이 특징이고, 자방 주위에 꽃술대가 배치되어 있다. 드림새 지름은 15.0cm로 평균치보다 약간 크고, 두께는 1.6cm 정도인데, Ⅷ-2식은 드림새 지름이 11.5cm로 훨씬 작다. 이러한 문양과 비슷한 막새로는 경주 사천왕사지와 성덕왕릉, 안압지, 월성 등의 출토품과 비교될 수 있겠다. 그러나, Ⅷ형은 경주 출토품에 비해 투박하거나 거칠게 만들어져 퇴화된 양식을 보여 제작시기가 통일신라시대 늦은 때로 여겨지며, 계양산성 출토 막새는 비록 소형이지만 경주 출토품과 가장 유사한 문양을 보여주고 있어 제작시기는 8세기를 전후한 때로 생각된다.

기타 수막새류는 모두 4개종류인데, 그 중에서 3점은 자미산성에서 출토된 것이고, 나머지 기타-3식은 원형사지 출토품이다. 기타-1·2식은 연화문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3식은 기타-4식과 더불어 드림새가 가로방향으로 긴 타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3식의 경우 연화문이 있지만 연잎보다 사이잎이 강조되었으며, 기타-4식은 짧은 단선으로 표현되어 어떤 문양을 표현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드림새 지름은 기타-1식이 14.3cm 정도로 추정되고, 기타-2식은 17.0cm 정도여서 다소 큰 편이다. 기타-3·4식은 12.8·16.5cm로 차이가 있으며, 두께는 2cm 내외이다. 이러한 종류의 막새는 경주나 중부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서울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백제 수막새와 닮은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하다. 그리고 광양 마로산성에서도 이와 비슷한 능형문 수막새가 출토되었는데, 능형문 안에 1과의 연자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제작시기와 출토지 간의 차이가 나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쉽진 않지만, 기타-1식처럼 연잎을 투박하고 엉성하게 연판에 붙여 만든 것은 지역적 양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2. 쌍조문과 용면, 바람개비문류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신라 수막새 중에는 연화문 외에도 쌍조문과 용면문, 바람개비문 등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막새들의 특징과 제작 시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쌍조문은 하남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일찍이 경주 안압지와 감은사지·사천왕사지·보문사지 등에서 여러 종류의 쌍조문 막새가 출토되어 대체적인 편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쌍조문은 화문이나 수목문을 중심으로 새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즉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으며, 7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8세기 후반내지 9세기에 이르러 퇴락, 경색화 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¹⁾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 외당의 제작 성행과 더불어 다양한 문양의 구도로 나타나며, 서운문·화문과 결합하여 복합 문양으로

6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1, 65쪽.

61) 劉蘭姬, 앞의 논문, 2004, 23쪽.

나타나기도 한다.⁶²⁾ 이러한 쌍조문은 서역미술의 도안을 채용하여 통일신라만의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장식성은 물론 길상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⁶³⁾

쌍조문 수막새는 하남에서만 3점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양상태는 두 마리의 새가 서로 마주 보는 일반적인 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새 머리 윗부분 중앙에 명문이 있고, 주연부 안쪽으로 연화문 형태의 꽃문양이 배치된 점이 이채롭다. 이 막새의 드림새 지름은 동사지 출토품을 참고로 하면, 16.5cm로 제법 큰 편이고 두께도 2.7cm정도로 다소 두툼한 편이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경주 출토품의 경우 드림새 지름이 13~14.5cm사이이고, 두께도 1.3~2.3cm정도여서 하남 출토품이 경주 출토품보다 크고 두꺼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주 출토품에 비해 새의 날개나 꽃문양이 다소 도식화된 듯하고, 생동감이 떨어지는 점에서 제작시기는 8세기대가 아닌가 한다.

용면문 수막새는 황룡사지의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막새가 6세기 후반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6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⁴⁾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신라 용면문 수막새는 많지 않은 가운데, 앞에서 다룬 2종류의 막새를 분석해 본 결과 드림새 지름이 모두 15.2cm정도이고, 두께는 용면-2식보다 용면-1식이 0.6cm정도 두꺼운 편이다. 용면의 표현기법은 일반적인 용면 막새들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송곳니가 돌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머리와 볼 부분이 화염처럼 다소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용면-1식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송곳니와 윗니 3개가 남아 있는데 비해 용면-2식은 넓게 벌린 입과 송곳니 4개+윗니·아랫니 9개가 있어 모두 13개의 치아가 있다. 이렇게 입을 벌린 형태와 치아의 개수는 용면문 막새의 형식을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한다.⁶⁵⁾ 주연 너비와 높이는 용면-1식과 2식이 거의 비슷한데, 용면-1식 주연에는 주문과 함께 구름문이 함께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암사지 출토 막새는 고구려 용면문 막새처럼 눈과 입이 크고 오목하게 돌출되어 입체감있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충주 탑평리 출토품은 경주 출토품들과 가장 비슷한데, 입이 크게 표현되었고 치아가 큼직하며 눈이 부리부리하다. 따라서, 용면-1·2식은 암사지와 탑평리, 경주 출토품에 비해 볼륨감이나 생동감이 부족해 보이고 주연부에 주문 외에 구름문과 같은 장식이 있다. 특히 용면-2식은 눈과 코의 생김새, 입이 벌어진 모양, 치아의 개수로 보아 고구려 환도산성 출토품과 비슷한 모티브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평면화된 모습이므로 제작시기는 9세기대로 추정된다.

바람개비문 막새는 이제까지 백제의 중심지역인 부여와 익산 등에서 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⁶⁶⁾ 광양 마로산성에서도 연화문이나 당초문과 결합된 형태의 바람개비문 막새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62) 金有植, 앞의 논문, 2010, 101쪽.

63) 劉蘭姬, 앞의 논문, 2004, 24쪽.

64) 金有植, 앞의 논문, 2010, 153쪽.

65) 백종오는 고구려 용면문 와당을 치아의 수와 혀의 유무에 따라 3식으로 나누기도 했고, 김희찬은 입을 벌린 형태를 크게 2식으로 나뉘던 세분화 하기도 했다(백종오, 앞의 책, 2006, 112~113쪽; 김희찬, 「고구려 귀면문 와당의 형식과 변천」, 『高句麗渤海研究』 34, 고구려발해학회, 2009).

66) 최근 풍납토성에서는 차륜문 형태의 수막새가 출토된 바 있는데, 드림새 중심에서 단선이 뻗어 나가는 문양으로 중심에서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막새는 바람개비문과는 차이가 있지만, 출토지가 한강 본류역이고, 백제의 유물이므로 연화문 외에도 이러한 종류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바람개비문은 ‘卍’자 형상과 비슷하여 그것에서 착안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⁶⁷⁾ 바람개비문을 태양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卍’자형이 태양의 운동을 본뜨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⁶⁸⁾ 자미산성 출토품은 날개의 회전방향이 여타막새들과 같은 시계방향이지만 백제와 마로산성의 바람개비문 막새들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자미산성 출토 막새는 평면상으로 타원형에 가깝고, 날개가 11조로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백제지역 출토 막새와 마로산성 출토품은 날개가 기본적으로 4조이고, 특히 마로산성 막새는 바람개비문이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연화와 당초문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자미산성 출토품과 차이가 있다. 드림새 지름은 자미산성 막새가 15.5cm 정도로 부여 출토 바람개비문 막새 크기(15~17cm)와 비슷하지만, 마로산성 출토품(17~18cm)이 약간 크다. 그리고 드림새 두께도 자미산성 출토품은 1.6cm 정도인데 반해, 마로산성 출토품은 2.6~3.9cm 사이로 다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미산성 출토품은 백제나 마로산성 막새와 같은 종류의 바람개비문으로 볼 수 있지만, 날개 수가 많으며 상당히 투박하면서 거칠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역시 지방에서 제작된 막새의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 막새의 제작방식은 수키와 하단부가 드림새의 주연으로 사용되는 천방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이 주목되며, 제작시기는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어지고 있다.⁶⁹⁾

3. 편년 및 성격

신라는 한강 유역을 진흥왕 14년(553)에 점령하여 신주와 북한산주, 남천주 등을 설치 또는 옮기는 등의 과정을 거쳐 영역화를 이루어 나갔고, 마침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문무왕 8년(668)에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강 유역에는 많은 성곽과 사찰, 고분, 주거지 등이 신라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특히 성곽과 사지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수막새가 출토되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수막새가 만들어진 시기를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편년해 보고, 아울러 성격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한강 유역에서 확인된 수막새는 주로 성곽과 사지 그리고 건물지에서 적게는 1점에서 많게는 몇 십점이 출토되었으나 문양도 다양각색이어서 상호 비교라든가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문양별 형식분류와 속성분석, 특징 등을 통해 제작시기와 몇가지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막새의 제작시기를 문양과 속성에 따라 분류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수막새와 출토유구와의 상관 관계가 뚜렷한 예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수막새 편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제시될 새로운 자료들에 기대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이들 수막새가 갖는 성격이 무엇인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신라 수막새의 문양은 연화문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쌍조문과 용면문, 바람개비문 등이 만들어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화문류는 출토량이 많지 않으나 문양의 특징을 고려하여 8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기타류도 4종류나 된다. 그 중에는 전형적인 경주양식을 띠는

67) 林永周, 앞의 책, 1983, 232쪽.

68) 鄭道和, 「韓國紋樣의 樣式史的 考察」, 『論文集』 16-1, 진주교육대학교, 1978, 116~118쪽.

69) 최문환, 앞의 논문, 2012, 226쪽.

〈표 18〉 한강 유역 출토 신라 수막새 편년안⁷⁰⁾

종류 시기	연화문류	쌍조 · 용면 · 바람개비문류
6C중~7C	 I-1식  I-2식  I-3식  III-2식  VII형	 바람개비문
8C	 VI형  V-1식  VIII-3식	 쌍조문
9C~10C	 III-1식  IV-4식  III-5식  II형  IV-5식	 용면-2식

막새들도 있지만, I 형과 IV형, 용면문의 일부는 고구려 막새들과 닮았고, III-2식이나 바람개비문 막새 같은 경우는 소위 천방기법으로 만들어져 백제 막새와 닮았거나 모티브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신라 수막새들은 II · III · IV · V · VIII형처럼 전형적인 경주 양식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70) 이 표에 수록된 수막새는 각 형식별로 대표적인 것이지만, 배치순서가 반드시 제작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것도 있지만,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제작된 막새도 있었다는 점이다.⁷¹⁾ 또한 단판연화문이 삼국통일이후부터는 연잎 개수가 늘어나거나 중판과 복판연화문으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은 경주지역 막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

둘째, 수막새의 출토 유적을 보면, 크게 성곽과 사지, 건물지로 나뉘지는데 성곽의 경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축성 내지 재사용한 곳 즉 이성산성이나 아차산성, 계양산성, 대모산성, 반월산성 등 주로 신라의 주요 성곽에서 대개 1~2점씩만 출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막새가 성곽 안에 조영된 건물에 실용적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 건물 조영이나 제사 등의 의례와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특히 수막새의 출토지점이 단순히 건물지뿐만 아니라 집수지나 축기부 등에서 나온다는 점이다.⁷²⁾ 또한 연화문 수막새가 사용된 점은 연꽃이 가진 상징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⁷³⁾ 따라서, 한강 유역에 분포한 성곽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들은 당시에 일어난 빈번한 전쟁은 물론 연꽃이 상징하는 의미 즉 피고 지는 생명력이나 불교에서의 사후세계, 부처 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 한가지 특징은 사지에서 출토된 막새 대부분이 주로 신라의 전형적인 양식을 띤 막새가 출토되고 있지만, 몇 점은 백제 막새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강 유역을 신라나 백제가 수 백년씩 지배하면서 통치한 반면, 고구려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만 지배했기 때문에 불교유적에까지 그들의 문화가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한강 유역 출토 신라 수막새에는 지역적 정서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일찍이 한강 유역은 삼국시대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주목받아 전쟁을 통해 백제→고구려→신라가 짧게는 70여년 길게는 500여년을 영유하며 그들의 고유 문화를 뿌리 내린 곳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수막새의 문양에도 신라는 물론 고구려·백제의 양식이 간취된다는 점이다. 즉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화문류의 막새 중에는 경주 양식의 막새도 있지만 고구려와 백제 양식을 모티브로 한 막새도 만들어졌고, 흔히 나말여초시기라고 할 수 있는 9~10세기 이르러서도 이러한 경향은 다시 반복되어졌다. 그 이유는 8세기 중엽부터 내란과 모반이 지속되어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화 되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인들이 6세기 중반 이후부터 고려가 개국되는 시점까지 실질적인 지배를 통해 신라 문화가 성립되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와 나말여초시기에 이르러서는 토착세력에 의한 뿌리 깊은 정서가 막새 문양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⁷⁴⁾

71) 와당의 제작 및 생산과 관련하여 한강 유역에서 이제까지 신라가 운영한 토기 및 기와가마는 서울 사당동을 비롯하여 용인 성북동, 문산 선유리, 고양 식사동, 하남 하사창동 기와가마와 최근 인천 설봉산성 주변인 목리에서 확인된 기와가마가 있지만, 이들 가마에서는 와당이 생산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최맹식은 “경주와 같은 왕도와 동일하거나 격이 높은 문화를 영위시킬 만한 존재로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한강 유역에서도 성곽이나 사지와 관련된 가마가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의 조사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최맹식,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출판사, 2006, 311쪽).

72) 백종오, 앞의 논문, 2011.

73) 연꽃은 태양, 물과 필연적 관계로 피고 지는 생명력에서 그 상징성이 강조되었고, 불교와 연꽃은 각 경론을 통해 불 때 극락 정도의 부처님 세계와 연화, 그리고 빛과 연화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林永周, 앞의 책, 1983, 63~67쪽).

74) 이러한 지방양식에 대하여 김성구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지방양식의 기와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9주 5소경의 지방관아터, 산성터 그리고 禪宗의 유행으로 각 지방에 건립된 사원터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김성구, 앞의 논문, 2000, 436쪽).

IV. 맺음말

이 글은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신라 와당 특히 수막새를 중심으로 문양별로 분류하여 문양 특징과 속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경주나 충주 혹은 고구려나 백제의 수막새 중에서 닮은 꼴을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한강 유역 출토 신라 와당은 성곽과 건물지, 사지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수막새가 암막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막새는 문양이 비교적 다양한 편인데, 특히 연화문류가 크게 8가지 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타류도 4가지이다. 연화문 막새의 편년은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I 형으로 성곽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6세기 중반 이후부터 7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III-2식과 VII형은 천왕사에서 출토되었는데, 문양은 다르지만 제작시기는 7세기대이고, V형과 VI·VIII형은 8세기를 중심으로 경주지역 막새들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II형과 III·IV·V형의 일부 막새들은 8세기 이후 나말여초시기까지 제작된 유형들로 판단된다. 그리고 쌍조문과 용면문, 바람개비문 등도 출토되어 한강 유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출토된 막새들과 비교가 가능해졌다. 특히 연화문 수막새는 형식에 따라 전형적인 신라 양식도 있지만, 당시의 정세와 지역적 정서 즉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을 받거나 모티브로 삼은 막새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곽에서 출토된 막새들은 주연부가 훼손된 상태의 것도 있고, 출토 위치도 집수시설이나 축기부 등으로 보아 건물지에 실제 사용되었다기보다 의례행위를 위한 상징성을 지닌 것도 있다. 아울러 사지에서는 주로 신라나 백제 양식의 막새가 확인되는데, 이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배한 기간이 가장 짧았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 고구려가 점령했거나 보루와 인접한 성곽에서는 고구려 양식의 막새가 출토되어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고 여겨진다. 건물지에서는 전형적인 신라 양식의 연화문이나 쌍조문 막새가 출토되어 당시의 지방에서 만들어진 막새 양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제작 시기가 삼국통일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어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때의 초기 유형의 막새는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불교문화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쇠퇴하는 시기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한강 유역에서 이제까지 출토된 신라 와당은 성곽과 사지, 건물지를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6세기 중엽 이후부터이며 한강 유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신라 양식의 막새가 주로 만들어지지만 고구려나 백제 문양을 모티브로 삼거나 모방한 막새들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다만, 신라 지방양식으로서의 막새 제작 기법과 성립 및 발전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막새 자료와 생산 가마의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저서

- 국립경주박물관, 『新羅瓦塼』, 2000.
 金東賢 외, 『建築과 文樣(上)』 韓國建築史大系Ⅴ, 東山文化社, 1976.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2.
 백종오,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2006
 유창중, 『동아시아 와당문화』, 미술문화, 2009.
 조원창, 『한국 고대 와당과 제와술의 교류』, 서경문화사, 2010.
 최맹식,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출판사, 2006.
 황보경, 『신라 문화 연구』, 주류성, 2009.

○ 논문

- 姜友邦, 「韓國瓦當藝術論序說」, 『新羅瓦塼』, 국립경주박물관, 2000.
 金城龜, 「雁鳴池 出土 古式瓦當의 考察」, 『美術資料』 29, 國立中央博物館, 1981.
 金城龜, 「多慶瓦窯址出土 新羅瓦塼小考」, 『美術資料』 33, 國立中央博物館, 1983.
 金城龜, 「統一新羅時代 瑞鳥文圓瓦當小考」,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論叢發刊委員會, 1984.
 金城龜, 「統一新羅時代 瓦塼研究」, 『考古美術』 162 · 163, 韓國美術史學會, 1984.
 金城龜, 「新羅기와의 成立과 그 變遷」, 『新羅瓦塼』, 국립경주박물관, 2000.
 金城龜, 「고대 동아시아의 瓦當藝術」, 『유창중 기증 기와 · 전돌』, 국립중앙박물관, 2002.
 金有植, 「기와를 통해 본 新羅 · 高句麗의 對外交渉」, 『東岳美術史學』 2, 동악미술사학회, 2001.
 金有植, 「한국 기와의 시대별 특징」, 『유창중 기증 기와 · 전돌』, 국립중앙박물관, 2002.
 金有植, 「통일신라시대 기와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신라시대고고학』, 韓國考古學會, 2004.
 金有植, 「6~8세기 新羅기와 研究 檢討」, 『東岳美術史學』 7, 동악미술사학회, 2006.
 金有植, 「5~6世紀 연화문수막새를 통해 본 新羅와 周邊諸國의 交流」, 『東岳美術史學』 10, 동악미술사학회, 2009.
 金有植, 『新羅 瓦當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金泰根, 「驪州 元香寺址 出土 막새瓦의 研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金희찬, 「4세기 고구려 연화문 와당의 개시연대에 대한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4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金희찬, 「고구려 귀면문 와당의 형식과 변천」, 『高句麗渤海研究』 34, 고구려발해학회, 2009.
 노운상, 「河南 天王寺址 出土 二重蓮瓣 막새의 제작시기 檢討」, 『新羅文化』 3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2.

- 文明大, 「廣州地域 寺址發掘의 성과와 의의」, 『佛敎美術』 10, 東國大學校 博物館, 1991.
- 朴洪國,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塼에 대한 一考察」,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6.
- 朴洪國, 「新羅 同紋異形 막새기와에 대한 小考」, 『古文化』 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1.
- 백종오, 「韓國古代瓦當의 毀棄樣相 檢討」, 『韓國史學報』 43, 高麗史學會, 2011.
- 申昌秀, 「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의 編年」,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6.
- 申昌秀, 「삼국시대 신라기와의 연구 - 황룡사지출토 신라기와를 중심으로 -」, 『文化財』 20, 文化財管理局, 1987.
- 劉蘭姬, 「統一新羅時代 鳥文막새에 대한 一考察」, 蔚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4.
- 尹根一, 「統一新羅時代 瓦當의 製作技法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8.
- 林明澤, 「統一新羅 鬼面瓦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2.
- 임영신, 「統一新羅時代의 瓦當과 塼에 나타난 寶相華文의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林永周, 『韓國紋樣史』, 미진사, 1983.
- 鄭道和, 「韓國紋樣의 樣式史의 考察」, 『論文集』 16-1, 진주교육대학교, 1978.
- 최문환, 「평택 자미산성 출토 막새 연구」, 『新羅史學報』 24, 新羅史學會, 2012.
- 최명자, 「統一新羅時代 蓮花紋의 樣式의 分析」,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최맹식, 「삼국시대 기와의 특징과 변천」, 『기와 그리고 전돌 명품선』,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11.
- 崔女珍, 「古新羅 蓮花文 瓦當의 形式과 系統」, 公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 허미형, 「통일신라기 평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皇甫慶, 「중부지방 신라 유적의 연구 및 조사현황과 성격 고찰」, 『文化史學』 36, 韓國文化史學會, 2011.

○ 보고서

- 강원문화재연구소, 『平昌 大上里寺址』, 2006.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계양산성 II』, 2011.
- 高麗文化財研究院, 『平澤 梁橋里 遺蹟』, 2010.
- 京畿道博物館·畿甸文化財研究院, 『高達寺址 I』, 2002.
-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 京畿道博物館,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 畿甸文化財研究院, 『河南 校山洞 建物址 中間報告書 II (2000)』, 2001.
- 畿甸文化財研究院, 『河南 校山洞 建物址 中間報告書 III (2001)』, 2002.
- 畿甸文化財研究院, 『元香寺』, 2003.
- 畿甸文化財研究院, 『高達寺址 II』, 2007.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6.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7.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5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1.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 종합 보고서 -』, 2004.
-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楊州 大母山城 發掘報告書』, 1990.
- 서울대학교 박물관,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2000.
- 세종대학교 박물관, 『하남 춘궁동 건물지 유적』, 2006a.
- 세종대학교 박물관, 『하남지역 시굴조사 보고서』, 2006b.
- 鮮文大學校 考古研究所, 『桂陽山城 發掘調査報告書』, 2008.
- 忠北大學校 博物館, 『廣州 春宮里 桐寺址發掘調査 報告』, 『板橋~九里·新曷~半月間 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 1988.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河南 天王寺址 試掘調査 報告書』, 2001.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河南 天王寺址 2次 試掘調査 報告書』, 2002.
- 한백문화재연구원, 『평택 자미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 한백문화재연구원, 「안성 죽주산성 4차 발굴조사 지도위원 회의자료」, 2010.
- 漢陽大學校 博物館, 『二聖山城 6次 發掘調査報告書』, 1999.
- 漢陽大學校 博物館, 『二聖山城 9次 發掘調査報告書』, 2002.
- 漢陽大學校 博物館, 『二聖山城 10次 發掘調査報告書』, 2003.
- 한울문화재연구원, 「안양 (구)유유부지내 중초사지 유적 추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0.

* 이 논문은 2012년 6월 26일에 투고되어,
2012년 7월 2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8월 2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A study of Shilla round roof-end tiles found in the basin of Han river**

Hwangbo, Kyung

A study of Shilla roof-end tiles found in the basin of Han river is not enoug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I want to know the feature and character of Shilla roof-end tiles made in the basin of Han river centering around round roof-end tiles found in some fortresses, temple site and building site.

The pattern of round roof-end tiles is various. Among those, a pattern of a Lotus comprises the largest part and we could find a pattern of a pair of birds, a pattern of a Dragon mask, a pattern of a pinwheel etc. Especially the kind of a pattern of a Lotus is classified under 8 forms and the other forms are 4. Lotus round roof-end tiles had classic form of Shilla, but it was effected by Gogurye, Baekje. And I could confirm roof-end tiles motivated by Gogurye's roof-end tiles, Baekje's roof-end tiles. Also, roof-end tiles found in castles was the symbol for ceremonial occasions rather than actually using in the building site. And in the temple site, mostly we could find Shilla's roof-end tiles, Baekje's roof-end tiles. It means that Gogurye had the shortest time in which it controlled the basin of Han river.

It was supported by the fact, that we could find Gogurye's roof-end tiles in the city occupied by Gogurye, and the fortress near fort. In the building site, the a pattern of a Lotus or a pattern of a pair of birds roof-end tiles of classic Shilla form was found so they helped to study the form making in the other region at that time.

As a result Shilla's roof-end tiles found in the basin of Han river until now were excavated centering around the fortress, the temple site and the building site. The time of making it was after the middle of 6 century. Roof-end tiles of Shilla's type which was reflected in the historical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basin of Han river were mostly made but there were roof-end tiles motivated by Gogurye, Baekje's form. And there were similar roof-end tiles to Gogurye, Baekje's form.

[Key Words] Shilla, Han river, round roof-end tiles, a pattern of a Lotus, a pattern of a pair of birds, a pattern of a Dragon mask, a pattern of a pinwheel.

* Curator, Sejong University Museum

【부록】

〈표 1〉 한강 유역 사지 출토 신라 수막새 현황

유적명	형식(막새명)	분석 수량(점)	색깔	연자수	드림새 지름(cm)	드림새 두께(cm)	자방지름 (cm)	주연너비 (cm)	주연높이 (cm)	비고
하남 천왕사지	Ⅲ-2식 (8엽단판연화문)	2	흑회색	1+4	14.9	2.6	4.0	1.1	0.6	
	Ⅶ형 (8엽복판연화문)	2	흑회색	1+4	14.4	2.9	4.9	1.3	0.4	
	용면-1식 (용면문)	1	회청색	없음	15.2	2.3		1.6	0.4	주연에 운문+주연문
여주 고달사지	Ⅲ-1식 (6엽단판연화문)	1	회갈색	9 (1+4+4)	15.1	2.1	5.6	0.6	0.3	
	V-1식 (8엽단판연화문)	1	회색	5 (1+4)	16.5	2.4	4.4	1.1	0.5	
	Ⅲ-4식 (8엽단판연화문)	1	회색	9 (1+8)	12.0	1.8	4.3	1.0	0.4	
여주 원향사지	기타-3식 (8엽단판연화문)	1	회갈색	다수	12.8	1.5	3.8	1.1	0.3	
	Ⅲ-3식 (8엽단판연화문)	1	?	9 (1+8)	12.7	2.3	2.6	1.3	0.6	
	Ⅳ-1식 (8엽단판연화문)	1	?	17 (1+16)	12.9	1.0	4.6	1.0	0.8	
	Ⅳ-2식 (7엽단판연화문)	1	회청색	8 (1+7)	12.7	2.6	3.3	1.2	0.5	
	Ⅳ-3식 (6엽단판연화문)	1	?	7 (1+6)	12.7	1.4	3.3	1.0	0.2	
	Ⅳ-4식 (12엽단판연화문)	1	황갈색	5(1+4)	13.6	2.9	2.7	1.4	1.8	
안성 봉업사지	Ⅷ-2식 (중판연화문)	1	황갈색	다수	11.5	2.7	3.0	1.0	0.4	
	Ⅷ-3식 (중판연화문)	1	회청색	31	14.4	2.4	3.7	1.2	0.8	

〈표 2〉 한강 유역 성곽 및 건물지 출토 신라 수막새 현황

유적명	형식(막새명)	분석수량 (점)	색깔	연자수	드림새 지름(cm)	드림새 두께(cm)	자방지름 (cm)	주연너비 (cm)	주연높이 (cm)	비고
포천 반월산성	Ⅱ형 (10엽단판연화문)	1	진회색 (?)	10개 이상	15.4	2.2	5.0	1.0	0.4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 참조
	Ⅲ-5식 (8엽단판연화문)	2	회청색	5 (1+4)	17.0	2.8	3.0	1.8	1.3	
양주 대모산성	I-4식 (8엽단판연화문)	1	진회색 (?)		13.0					
서울 아차산성	I-2식 (10엽단판연화문)	1	회백색	4	14.4(?)	2.5	4.0			주연부 결실
	I-5식 (10엽단판연화문)	2	회백색		15.1	1.8	3.6	1.5	0.3	
하남 이성산성	I-1식 (8엽단판연화문)	1	황갈색	유	14.4	2.8	3.1			9차발굴 출토품
인천 계양산성	8엽단판연화문	1	회색	불분명	17.6(?)	2.3	4.2			주연부 결실
	I-3식 (8엽단판연화문)	1	명황색	불분명	18.3(?)	2.6	6.0			주연부 결실
	8엽중판연화문	1	황갈색	7(1+6)	9.0	1.9		1.0		주연부 2단
평택 자미산성	바람개비문	5	회흑색	없음	15.5	1.6	없음	1.7		총24점 중 상태가 양호한 5점을 측정한 것임
	기타-1식 (6엽단판연화문A)	1	황갈색	없음	14.3	2.1	2.4	0.9	0.3	
	기타-2식 (5엽단판연화문C)	1	회색	없음	17.0	1.7	3.2	0.9		
	6엽단판연화문D	1	황갈색	없음	11.0(?)	1.3	3.0			주연부 결실
	기타-4식 (연화문F)	2	회청색	없음	16.5	1.9	없음	1.2		타원형태
	Ⅷ-1식 (8엽중판연화문)	1	회갈색	8(1+7)	15.0	1.6	2.6	1.2	0.6	내판16엽복판, 연주문, I자형접합
하남 교산동 건물지	복판복엽연화문	1	회색	6(1+5?)	8.1(?)	1.8	결실	0.5	0.5	
	용면-2식 (용면문)	2	회색	없음	15.2	1.5	없음	1.2	0.7	2000년 출토품
	(용면문)	2	회청색	없음	15.1	1.8	없음	1.8	0.5	2001년 출토품
하남 춘궁동 401-8	Ⅵ형 (12엽단판연화문)	12	회청색	4	14.3	2.2	4.7	1.2	0.6	
	쌍조문 수막새	1	회청색		15.4(?)	2.7				주연결실
하남 춘궁동 건물지	10엽단판연화문	1	회청색	1+16(?)	13.0(?)	2.2	4.7	결실	결실	주연결실
	V-2식 (8엽단판연화문)	1	회청색	불분명	12.9	2.5	결실	1.2	0.5	
평택 양교리 2호 건물지	Ⅳ-5식 (8엽단판연화문)	1	회청색	9(1+8)	15.3	2.0	5.0	1.2	1.0	